

[실무수습기-검찰일반,심화실무수습]

## 저항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죄악이다

(To Sin By Silence When We Should Protest Makes

Cowards Out Of Men)

- E.W. 윌콕스(Ella Wheeler Wilcox)

### 김희중

- 1981년 7월 생
- 광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대 졸업
- TG 삼보컴퓨터 법무팀 사원 (퇴직)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 I. 시작하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짧은 회사생활을 마무리하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전까지 저는 법대생으로서의 진로 고민이나 사법시험 실패 등으로 방황하였던 1인이었습니다.

서른이 넘어 공부할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지지해 주는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20대의 패기와 열정보다 더욱 강렬하고 절실한 마음을 품고 지난 2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 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선호하는 ‘검찰일반수습’과 ‘검찰심화수습’을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은 값지고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제 주변의 우수한 분들보다 많이 부족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성실함만이 유일한 장점이기애,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검찰일반수습’과 ‘검찰심

화수습'을 통해 느끼고 배운 점, 그리고 검찰수습과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를 중심으로 이 글을 써나가고자 합니다.

'진학가이드'의 목적으로 쓴 글이지만, 제가 검사가 아니기에 검찰의 실제 모습을 100%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3자로서 검찰심화과정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법조시장에서 검사임용 등의 목표를 가지고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거나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제 글이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II. '검찰실무수습'에서 알게 된 검찰의 모습

'부와 명예'보다 '정의'를, '나 자신'보다 '사회의 약자'를, '거짓'보다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려운 길이지만, 일생을 바쳐 지킬만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검찰실무수습에서 만난 검사님들 덕분이었습니다.

검찰일반실무수습에서 지도교수이셨던 노로 검사님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생각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공정·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실을 찾아야만 진정한 의미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집에 빠지지 말고, 바른 사고와 배움의 자세를 항상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시며 검사로서의 삶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르쳐 주신 분이자 제가 검사로서의 삶을 꿈꾸게 한 정신적 멘토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 외에도 검찰심화실무수습 입교식 환영사에서 "검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희생이 따른다.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들은 국민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노환균 법무연수원장님의 말씀이나, "피해자들이 떠올라 내 판단이 정확했는지 혹은 최선이었는지에 대한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 힘든 삶 속에서도 '바를 정(正)' 하나만을 보며 살아왔다"던 검찰심화실무수습 지도교수셨던 이창온 검사님의 말씀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검사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가장 선호하는 직역이 된 데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이나 실무수습과정을 통해 직접 만나게 된 검사님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검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도와 매력이크졌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항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죄악이다(To Sin By Silence

When We Should Protest Makes Cowards Out Of Men)’ 라는 말을 아시나요? 영화 ‘J.F.K.’ 에서 검사로 활약했던 E.W. 윌콕스(Ella Wheeler Wilcox)가 했던 대사입니다. 이러한 영화 속 주인공의 열정과 정의감을 저는 검찰실무수습기간동안 만났던 검찰 관계자 분들에게서 느끼고 왔습니다.

## II. ‘검찰실무수습’의 선발과정

검찰일반수습과정에는 검사란 어떠한 직역일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검찰심화수습과정은 망설임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1. 검찰일반실무수습선발과정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1학기가 되면, 검찰, 법원, 법무법인, 국회, 법제처, 헌법재판소, 육군본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들에서 실무수습생 모집공고를 냅니다.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동안 2곳 이상에서 실무수습을 하는 동기도 여러 명 보았지만, 저는 검찰실무수습 하나만 선택하였습니다. 그 때는 꼭 검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보다는 검사라는 직업이 궁금했고, 1기 선배님들이 검찰실습과정이 체계적이고 실무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추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일반수습과정은 제가 다니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7월, 8월 2차례에 걸쳐 각각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2주에 걸쳐 실무수습에 참여하였습니다. 첫 1주일만 법무연수원에서 검찰실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나머지 1주일만 일선 검찰청에서 실제 검찰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 배우는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동기들이나,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친구들은 취업과 직결되는 법무법인을 선호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으나, 아직 2학년 1학기에는 실무수습을 통해 실무에 대해 배우고 실력을 쌓아나가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2. 검찰심화수습선발과정

검찰심화수습은 처음으로 검찰직역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2기를 대상으로 한 검찰심화실무수습은 전국에서 180명 정도를 선발하였습니다. 심화과정은 2학년 2학기가 끝

난 후 방학동안(1월~2월) 3주에 걸쳐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법무연수원에서 검찰실무에 필요한 역량을 집중적으로 교육받게 됩니다.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과정 수습생들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높은 경쟁률을 통해 선발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이 2,000명이라고 가정하면, 심화과정은 정원의 약 5% 정도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검사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선호하는 직역 중 하나여서, 실제 체감 경쟁은 더욱 치열했습니다.

실제로 심화과정에서 뛰어난 학업성적을 역량을 갖춘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변리사, 회계사, 경찰, 공과대학 등 다양한 직역과 영역에서 활동한 경력을 가진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미래 법조인으로서 제 자신이 가진 역량과 전문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Ⅲ. 검찰실무수습의 커리큘럼

검찰수습과정에서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에서 법무연수원의 커리큘럼과 일선청의 커리큘럼이 유사하여 함께 묶어 설명하는 것이 유익하다 생각됩니다. 전체 커리큘럼이 빠빠하게 진행되어 지면상 모든 과정을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기억에 남는 과정을 중심으로 써나가고자 합니다.

#### 1. 법무연수원에서의 교육과정

‘형사사건 기록의 이해 및 기록강평수업’은 일반과정과 심화과정 모두에서 진행되는데, 수습생들이 기록을 받아 검토한 후에 이에 대하여 강평이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지도검사님들은 실제로 사건을 자신이 배당받아 진행해 나가는 것처럼, 전반적인 메모요령, 형사소송법적 접근방법, 형사법적 쟁점들을 차례로 언급해 주십니다. 특히 강의마다 사건을 판단할 때 후술하는 증거능력, 증명력을 차례로 검토하면서 실무에서의 노하우도 곁들여 설명해 주셔서 학교에서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던 것에 비해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토론편가와 강평’은 심화과정에서만 이뤄지는데, 토론주제를 미리 제시하여 실무수습생이 충분한 사전조사와 법리를 검토하여 자신의 의견과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토론진행 전에

‘주제토론 요령 강의’가 진행되는데, 강의를 담당하시는 검사님께서 범조인으로서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과 의견합의를 만들어 내는 일련의 과정, 그리고 효과적인 토론방법과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을 설명해 주십니다. 일반적인 토론기술이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이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구체적인 기술적 측면을 제시해주시는 만큼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의 제문제’라는 프로그램은 심화과정에서 진행됩니다. 일반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진행방식이나 목적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쟁점규정들의 역사적 배경과 그 기본논리, 그리고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에 대하여 배우는 과정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내용들을 입법취지에 맞게 이해하게 됨으로써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가 수월해집니다.

‘영상녹화조사 강의 및 실습’은 심화과정에서는 법무연수원에서, 일반과정에서는 각 일선청에서 진행됩니다. 차이점은 심화과정에서는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면을 검사님께서 미리 공동강의를 통해 수습생들에게 숙지시킨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명사례를 예로 들면서 피의자들이 어떠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지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 접근하고, 인간의 자의를 철저히 배제한 채 그 맹점의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방식을 설명해주시는 점은 인상 깊었습니다.

‘검사와의 대화의 시간’은 일선에서 직접 근무하신 검사님들께서 오셔서 실무수습생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해주시는 방식이며, 실제 검사로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깨우치신 덕목과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이 가족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신 적이 있냐는 수습생의 질문이 있었는데, ‘검사가 범죄자를 무서워하면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으며, 정의사회가 구현되겠냐’고 하시며, ‘검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족들도 강해져야 한다’는 답변이 기억에 남습니다.

## 2. 광주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의 교육과정

일반과정에서는 일주일 동안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심화과정에서는 하루 동안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실무수습을 하였습니다. 일선청에서 근무하시는 검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습생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십니다. 커리큘럼과정은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이 비슷하며 시간적인 양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주로 피의자신문과정부터 형사재판 참관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틈날 때마다 검사님들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수습생들에게 수사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실무 노하우를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체크해 주시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님이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님 덕분에 일선청 실무수습기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일정을 마무리할 때는 더 오랫동안 실무수습을 하면서 일선 노하우를 더 배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 IV. 사건기록에 대한 짧은 생각

기록검토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 독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1. 검찰일반과정에서의 기록검토

검찰일반실무수습 기간동안에는 법무연수원에서 사건기록에 대해 2번 검토할 기회가 있습니다. 처음 기록을 대할 때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수습과정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처음부터 순서대로 기록을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사건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나중에 기록을 보는 올바른 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과정에서는 기록에서 쟁점을 찾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정도로 한정되며, 강평시간에 지도검사님께서 자세히 기록검토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검찰심화과정과 검찰실무 1,2 과목에서 배우게 될 기소, 불기소, 증거판단 등과 같은 기술적 부분에 집착하기 보다는 처음 기록을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꼼꼼히 내용을 읽어나가며 기록을 볼 때 무엇이 중요할지 어떻게 사건을 재구성하면 좋을지 근본적인 부분을 고민해 보는 것이 법적 사고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광주지방검찰청에서의 일주일간 실무수습기간 동안에도 2번의 기록이 주어지는데, 지도검사님들이 수습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을 통해 기록을 볼 때 생각해보아야할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십니다. 이 때 그 내용을 잘 메모하여

두는 것이 검사님들이 사용하는 실무에서의 메모방법이나 접근방식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실무수습과정이 끝난 후에도 혼자서 기록검토에 이를 적용해 보는 연습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 2. 검찰심화과정에서의 기록검토

2012년 검찰심화실습 기간 동안의 기록검토는 기록연습 2회, 실제 기록평가 2회로 총 4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화과정에서는 수습생들의 기록검토에 대한 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과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습생으로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고 옵니다. 비록 저는 역량이 부족하여 기록검토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제 경험 중 앞으로 검찰심화실습에 지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점들을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검찰심화실습 과정 시작 전에 사법연수원 39, 40, 41기 검찰 실무기록, 형사변호사실무기록을 구하여 검토하여 보았고, 형사실체법을 쟁점별로 정리하면서 형사자료집 등의 참고자료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심화실습에서 받은 평가기록들이나 기록연습은 사법연수원의 기록과는 조금 방향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간략히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시험용으로 변형하여 쟁점들을 다양하게 포섭해 놓은 사법연수원 자료들과는 다르게 검찰심화수습과정 기록들은 실무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제 사건기록들을 문제화하여 변형시킨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많은 형사법적 지식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사건을 재편성하여 실제적 진실에 가깝게 접근하는 논리적 검증과정 등이 훨씬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앞에서 제가 검찰일반실무수습에서는 형사법적 쟁점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고 한 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록평거나 연습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저와 같이 사법연수원교재의 문제풀이적 접근방식보다는 실제 사건 기록을 보는 것처럼 그 쟁점이나 논증과정을 고민해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심화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동기 수습생들도 기록평가의 결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검토하는 데에 집중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형사법학의 이론적 쟁점에 저처럼 너무 연연해서 기록검토서를 작성하지 않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V. 인연의 소중함

검찰실무수습에서 느낀 구성원들간의 유대감과 동료에는 다른 실무수습을 통해서도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자 추억입니다.

먼저 검찰일반실무수습기간에 법무연수원 휴게실에서 수습동기들이 준비해준 깜짝 생일파티와 케익을 나누어 먹으며 나누던 담소들,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일주일간 함께 매일 기록과제들을 보며 기록들에 담겨진 한구절한구절의 이야기들에 마음아파하고, 안타까워하였던 기억들은 법조인으로서의 무게를 서로 공감하게 되었던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검찰심화실무수습기간 동안에는 법무연수원에서 3주간 합숙하였던 친구들과 많은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며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별과제수행과 체육활동’은 자신이 가진 율타리와 틀을 깨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료를 향한 응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고 우승한 단체종목에서 너무 기뻐 환하게 웃던 반 동료들의 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난 후 뒷풀이 장기자랑시간에 자신이 가진 재주와 소재들을 하나씩 꺼내들 때면, 그 엉뚱함과 기발함에 긴장이 풀어지면서 서로를 미소지게 합니다. 수습과정에서의 바쁜 일상 와중에 가졌던 이러한 소소한 즐거움이 서로간의 ‘동료애’를 굳건하게 해 줍니다.

또한 조별 공동과제를 준비하면서, 조장 이용희군과 반장인 김기호 형님, 강준구 형님, 공동과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큰 재미를 준 박태규군 등 우리 조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삼일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함께했던 과제수행과정은 소중한 동료이자 벗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조별공동과제를 발표하는 실무수습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는 헤어짐에 아쉬워 눈물 흘리는 실무수습생들이 많았습니다. 지도교수님이셨던 이창은 검사님은 반 학생들과의 헤어짐이 아쉬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며, 실무수습생 한사람씩 작별인사와 격려를 해주시며 다음의 만남을 기약하였습니다.

짧은 3주의 기간에 이러한 깊은 우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자신의 모습과 닮은 이들에게서 느끼는 애정과 서로의 노력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때의 동기들과는 지금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모임을 가지며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실무수습에 지원하시게 되실 분들 또한 제가 느꼈던 동료애와 인연의 소중함을 경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VI. 글을 마무리하며

‘넓은 바다는 풍랑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바다와 같은 큰 마음을 지니고 바를 정(正) 하나를 지켜 나아가며 소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시다.

제 글이 검찰실무수습에서 느낀 바에 국한되어 있어서, 검찰직역에 대한 더 많은 장점과 매력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자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원하게 될 실무수습과정에 대해 미리 알고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항할 때 침묵하지 않고, 바를 정(正)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검사의 삶’을 꿈꾸거나 가까이에서 느껴보고 싶은 이들이라면 검찰실무수습과정에 꼭 지원하셔서 경험해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실무수습 일반과정, 심화과정에서 실습 기간동안 실습생들에게 많은 격려와 가르침을 주신 법무연수원 원장님을 비롯한 검사님들, 관계자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